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太平通 東亞日報社 代表電話本局② 一八一一番

社說 司法과 道義

一

그間謀利行爲에對한司直의處斷如何에對하야는 一般의興味와關心이적지않엇다할것이엇다 謀利가 物資의買占賣惜等 그惡質處分에依하야 幾百幾千萬圓의私利를獨占하엿다는것보담도 物價高를助長하야 民衆生活을威脅하고 나아가서는 建國을妨害한다는 反逆的意味에서 民族的義憤과一般의公議로서 이것을注視하엿든것이다。이처럼一般의注視가集注되고잇는 謀利行爲에對한 司直의見解와 處斷이 區區함에 疑念을 품게되엇다。民意는 반드시 그處罰만을期待한다할에잇엇든것도 아닐것이다、그러나、一般的道義觀念과 司法의實際上見解와 取扱과는相當히 乖離되는바가잇다는點에서 疑訝되는까닭이다。

二

具體的事件에對한法의處斷은 그事件處斷에該當한 法條가없이 單純한國民的 道義에違反한다는것만으로는 안된는것은 勿論말할 必要도없다 그러나 法은 大體로國民道義를 基礎로한上에建築인것이며더욱이 刑法에잇어서 一般的道義와 形式的法條와는 大槪로 一致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道義를基礎로하는 法의實際的運用을使命으로하는司法은 法條에依據하야 이를適用하지아는면안되는것이니만치 또한 一般的道義觀念을無視하지못할것이다 以上의 關係는 今般의謀利事件取扱에잇어서도 그例外가될수는없는것이려니와 어떠한事件에나 通念이되지않을수없는바이다。

三

裁判官은法規適用의機械는아니다 그人格을通한思考의表現인것이다 八、一五以後의司法部에는 從來在野法曹人이든辯護士가만히登用된까닭에 一般裁決에 嚴格을 欠하엿다는 一般의世評은 根據가薄弱한 惡評의하나이니 擧論할必要가없거니와 司法官의使命은 國民道義의 具體的 樹立이라는것을 忘却하여서는 안될것이니 續出할 今后의許多한 事件을爲하야 一言하는바이다。

戰勝 一周年記念日
「아이젠하워」大將聲明

【華盛頓六日發AP合同】「아이젠하워」大將은 歐洲戰爭一周年記念日을 마지함에當하야 다음과같은 聲明을發表하엿다

우리國民은 恒久的인平和世界의 平和가 樹立될때까지는 勝利獲得을爲하야 犧牲된戰歿勇士들에게 義務를 다하엿다고는 말할수없는것이다

또同大將과 陸軍長官「페타슨」氏는 五月八日戰勝一周年記念日을압두고 戰歿陸海軍勇士의 冥福을祈願하엿다한다

美蘇共同委員會
平壤會談은十日頃
第八號聲明도不遠發表

美蘇共同委員會는 連日德壽宮에서열리고있는데 民主臨時政府樹立에 對하야兩國代表間에 具體的討議를거듭하고있다는것은充分히 豫想할수있는바이지만 第七號聲明의 內容을 實踐的으로 具顯할 方法과 節次는 어떠한가 數日內로 發表될 第八號聲明은 이러한期待下에서 三千萬民族은 待望하고있다 只聞한바에依하면 第八號聲明發表後에 卽各政黨과社會團體가 民主臨時政府樹立問題에對하야 協議하는동안에 美蘇兩代表團은平壤에가서 現地情勢를 聽取하면서 美蘇平壤會談을 開催하리라하는데 느저도 오는十日前後해서 平壤行은 實現되리라고한다 서울會談에서 어느程度意見一致를 본後에 平壤會談을 開催할는지는 알수없으나 民主臨時政府樹立에 對하야 兩國側에서 虛心坦懷의誠意를 가지고 討議에臨하는것이 무엇보다 先決問題라고한다

러-취長官東京에
今週末頃歸京할豫定

軍政長官아-치·엘·러-취少將은 東京聯合軍總司令部와 現在兵籍에서除隊한 美軍將兵들과 交替할軍人補充問題에 關하야 協議하고저 五月六日午前九時六分에 파무리大佐를 帶同 空路로東京을向하야 發京하엿는데 今週末에歸京豫定으로서 東京滯在中에는敎育、經濟、農業及商業에關한 問題도討議할것이며 東京에는戰線에서同苦同樂하든 知名들도있음으로感慨기픈 知友들과도 相面할것이라고 한다(寫眞은 러-취軍政長官)

굿펠로-大佐華府에
來廿日頃에空路로出發할豫定

南朝鮮地方巡廻中인 李承晩博士는 美蘇共委에對處할民主議院의 意見을聽取하고저 旅程을 變更하야 釜山을最終地로十日頃一段歸京하기로되엿다는바一部情報에依하면「하-지」中將政治顧問「굿펠로」大佐는 李博士가歸京하면 美蘇共委에對한 民議側意見을中心으로 要談할것이라한다 그리고 同大佐는民議側意見을 聽取한後各政黨、社會團體와 協議할려이라하며美蘇共委에 追伴하는 政局의推移를 知悉한後同大佐는 來二十日頃約二個月豫定으로 本國華盛頓으로 向하리라한다、「굿」大佐의 華盛頓行은「트루맨」大統領을爲始하야 政府首腦들에게 朝鮮政治情勢를詳細히 報告하리라는바 同大佐의今後數日間의動向은 자못注目되고있다

韓國民主黨에
二十三分科會設置

韓國民主黨에서는二十三個의分科委員會를設置하고 責任委員을다음과같이選定하엿다 ▲法制調査金炳魯▲外交調査張德秀▲國際問題研究高昌一▲政務調査金俊淵▲交通研究白寬洙▲厚生研究李甲秀▲敎育問題白南薰▲土地制度改革洪性夏▲農村對策成尙勳▲農政李[illegible]▲勞働對策金若水▲社會問題對策[illegible]▲社會情報調査朴[illegible]▲青年訓練錢鎭漢▲物價對策李活▲食糧對策徐相日▲産業對策金度演▲貿易安東源▲商工對策金東元▲貿易對策孫梓禎▲財政李順鐸▲國防問題對策[illegible]允東▲婦人問題研究任永信

四外相會議五日休會

【巴里六日發AP合同】五日開催豫定이든 四國外相非公式會談는相互協議에依하야 六日로延期되엿다 五日會議에서는「트리에스트」港口問題가討議될豫定이엿으나 各代表의疲勞로因하야延期된것이다

社會黨中心으로
日聯立內閣組織

【東京五日發合同】幣原日本首相은 五日上午十時首相官邸에片山社會黨書記長을招請하야 自由黨總裁鳩山一郞氏의公職追放을契機로한 政局의收拾措置에對하야懇談한結果 社會黨을首班으로하여 新內閣을組織하기로되여 右懇談後片山書記長은同十一時半首相官邸를辭去하얏다

五號聲明과 우리의覺悟
『式辭』와『雜音』과『事實』
三相子가빚어낸 結果는무엇?

本社主幹 薛義植

物議를이르킨『스티코프』氏의式辭中에 「未來民主々義的朝鮮臨時政府는『모스코』三相會議決定을支持하는 各民主々義的政黨과社會團體를網羅한 大衆團結의 土臺우에서建設되어야할것이다。」라는一句가있엇다。問題된內容은 이것뿐이아니나、式辭의檢討가目的이아니매 本論과直接關聯되는前記一句만에言及하기로하자。

三相 會議以來로 朝鮮안에 託治支持라는用語와 託治反對라는 用語가있엇다。이는說明할必要가없겟다。그後로 託治反對가 朝鮮의大勢가 되자、託治支持는居接할根據가없어서『三相支持』라는語로로變皮(變質이면千萬多幸이러니와) 되엇음을보앗다 그러나 三相反對라는語句가있음을 못지못하엿다 三相會議自體를反對할理由가없음은 累述한바와같거니와、反對할理由가없오매 反對하는團體도 없엇고 反對하는語句도생겨나지않앗든것이다。實際이러함도 不拘하고『三相會議支持』云云을 세삼스레히强調한 蘇聯의意圖는 어디에있는가?

◇

어떠한『旣現事實』이없고、어떠한『旣成雜音』이없엇다하면이 式辭一句는 平凡한 普通敍述로 읽을수있다。마치三相會議決定事項과같이 無難하게 解釋할수가있음이 勿論이다 그러나이를 有難하게 解釋하야不必要한

物議 를이르키게한黨派人이있었으니 그는다른派가아니라受託을本質로한『三相支持』의共系諸公이엇다『보아라우리世上』이란 것이宣傳을시작하엿다 蘇聯代表의推進下에서自派만이共委에參劃하고、그리고臨政을樹立한다고勢々自得의氣勢엿다。이리하야蘇聯代表외이른바『三相支持派』는『託治支持派』를 意味할것이라고認定하게되엇다 一般은이가른旣成雜音에또한가지三八以北의旣現事實을聯想케되엿다 三八以北은當初부터託治支持를命令에依하야强要받는地帶다。言論集會結社의自由가最低限度로制限된地方이매反託運動은姑捨하고反託이란文字도못쓰는別天地다 一個의命令이있고一黨의

專權 이있고 一色의 政治가 뿌리를뻗으려는곳이다。그리고蘇聯이執能하는『北朝鮮』이다。이같은事實과 蘇聯代表의 雜音에依하야、蘇聯代表의『三相支持』는 蘇聯代表의意思與否를不拘하고『託治支持』라는 有難한解釋을나리지않을수없는 情勢를만들어노앗다。追後하야다시 引用코저하거니와 그式辭의末尾에는『…臨時的後見制는…』云云한 文句까지가揷入되어있음에 비추어이漸案은 더한층 뚜렷할수박게없이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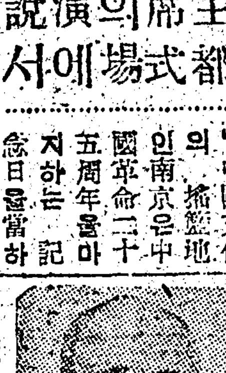
◇

萬一 이같이되면 結果는 어찌될것인가? 蘇聯이果然이같은 意圖下에서 自意를固執한다하면 어찌될것이가? 朝鮮의

大勢 인反託陣營을 無視한다는 結果는 不問可知다。될것이 하나도있을카싶지않거니와、萬一『무엇』이된다고하면 그는『무허질것』을 前提로하는『무엇』일것이며『朝鮮』이라는 範圍를 벗어선『무엇』을 招來할것이다 그것은 蘇聯對朝鮮問題가 아니며 朝鮮에局限된 問題가 아님도 勿論이다 蘇聯對美國 共委의出發이 이미 이같은暗影을 띄지엇든지라、그前途는 無難치 못할것이豫想되었다。無難치못할 會議이매 이러라할 進展이없어서 古宮의 봄날은 閒々하게도 遲々하였다。非公開인 會談實況은 알수없는일이었으나 第一號로부터 四號까지 發表된 共同聲明의、

空虛 한內容自體가 淡淡하게 道間의情景을反映하엿다할것이다。이러는동안에 代表部員의 平壤往復도있었고 하-지中將의 東京訪問도있엇다。이리하야모스코와 워신톤間에는 無電의불꽃이 相當히 피엿든것이다。이中에서 가장 衝擊을이르킨 插話는『南朝鮮單獨政府樹立說』이엿으니 그는美國通信社AP가傳한報道엿다。이報道는 무엇을意味한것이며、이報道로因하야 무엇이생기엿는가?(계속)

蔣主席의演說 還都式場에서
侵略과恥辱을除去
七年間對日戰에서體得


【南京六日發AP合同】中國文化의 搖籃地인南京은中國革命二十五周年을 마지하는 記念日을當하야 還都記念式을 擧行하엿다 이날蔣主席과 宋美齡女史는 數千大衆이 集合한 式場에 나타나 徐々히 中山陵階段을 올나가 主體하자 一百一發의 砲聲이 天地를 震動시켯다 大衆은 自發的으로 國歌를 高唱하고 感激의눈물을 禁치못하엿다한다 蔣主席은 國歌가끗나자 南京還都布告를朗讀하고 大衆에게 다음과같이 演說하엿다(寫眞은蔣介石氏)

우리는七年間對日戰에서 獲得한모든收穫을平和的手段으로이를保有하기爲하야 一致團結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나는現在國共兩軍이衝突하고있는滿洲뿐만아니라全中國地區에잇어서의和平統一을力說하는바이다。中國人의長點은道德心、保衛心、犧牲心、謙遜心、淸楚心、公德心、正直의八德이잇다 希望에充滿한將來를向하야邁進하는데잇어서 우리의長點은全中國民을引導할것으로믿는다 우리는十五年前滿洲에서發生한奉天事件과日人의南京侵略이第二次世界大戰의間接的原因이되엿다는것을銘記하는同時에우리는그苦難의經驗을이저서는안된다

中山陵에서式을맛친蔣主席은夫人同伴南京에있는國民大會々館으로가서二千大衆에게再次다음과같은要旨의演說을하엿다(以下略)

人事

▲金昌集氏(高麗文化社總務局長)▲金永壽氏(어린이신문主幹)▲崔永秀氏(어린이신문編輯長) 어린이날祝賀音樂會終了人事次來訪 ▲金準枰氏(辯護士) 서울鐘路二丁目基督敎書會會館으로事務所移轉人事次來訪 ▲韓仁鳳氏(李儁烈士追念準備會理事) 人事次來訪 ▲李鎬律氏(同上)

司法官異動發令

光州地方判事姜錫福 任京城地方檢事▲京城控訴書記長劉義九 任光州地方檢事▲京城地方書記長金達起 任光州地方檢事▲京城控訴檢事局書記長金德文 任開城支廳檢事▲李芳週 任馬山支廳檢事▲曺洪燮 任釜山地方判事▲吳日燮 任釜山地方檢事▲沈完錫 任少年審判所判事▲曺成煥 任馬山支廳檢事

횡설수설

▼辛버氏 遠路에 오시어 一泊回程하니 感激難測이요 섭섭不禁!▼責善은 朋友之道라。悖德非行의동무를 面責、或은 글을보내어 悔改를促함은 忠直한동무。▼三相會議가『모스코』에서 열렷던건 우리가 特히잘아는일이요 ▼四相會議는 方今巴里에서 開催進行中—▼伊太利 奧地利에서의 聯合軍의減員又는 同時撤退說은 有耶無耶—▼英國은『리비야』의 獨立을提議。佛은 伊의單獨托治를主張、美는 U·N의托治를力說、蘇는 伊國外一國의 二個國托治를强調—▼各說이 皆有一理일지나 以伊治伊가 以夷制夷와는 다른배있는지 없는지、伊國에贊託派는없는뭇。

▼漁村에 希望과 光明을주어라

趣旨書

朝鮮은三面環海國이오 또寒暖兩海流의交會點에當하야 世界有數의 水産資源地帶를形成하니 진실로 그開發利用에致力할진대 一國富民産의支持를 期待하야도 거의不足함을모를것이다 이제國運이 回泰하고萬象이維新하야 太業의建設이 物力에가다리지안는것업고 資源의開發上에있는水産의重要性이 十百을倍加하얏거늘 斯業界斯業人의 無力하고 頹唐無策함이날로더부러 轉甚하야 만일[illegible]의勢에 一委하고 挽回하기를 생각치아니할진대 그[illegible]의害이거의그칠바를모르리니 萬里無邊의巨海와 萬頃無底의深穴을 擔當經營하는 海上産業人의責任은 몃층이나더 重大할밧게업다 이에業界에 尾附하는 若干同志가 敢히挺出先頭의 勇을奮發하야 적게는業界興廢의 問題로부터 크게는 國家産業의 經綸에밋치고 갓갑게는水産機構의整備完[illegible]부터 멀리는 海洋國策의 實現을包括한 建國大業의 一翼을擔任하기爲하야『全國水産對策協議會』를發起하고 全國大會를開設하야 衆智全力의 一心齊擧를 會盟코저하옵나니 斯業從來의 關係者는진실로 毋論이어니와 무릇國家産業의 實質的建設에留心하시는 人士는快來欣集하야 遠海萬里의 所有[illegible]으로 하야금 저마다 建國益世의 一波一鱗으로서 榮光에 [illegible]을엇게하시면 그幸그快를 맛당히 또어떠라하리요

綱領

一、國土計劃으로서의 水産對策을確立하자
一、漁村愛와 漁民福利를 基礎로한 漁村對策을 確立하자
一、獨占的私有觀念을버리고 民主的이고協同的인 水産新體制를 確立하자
一、水産敎育을擴充하야 科學技術의 向上에 精進하자
一、進取的인 海洋精神을 涵養하야 國民의 精魂을삼자

準備委員

吉恒鎭 金延燮 朴利根 朴弘哲 安[illegible]仁 外二十五名

日時 五月十日下午一時부터翌日까지
場所 서울市鍾路二丁目 青年會館

檀紀四二七九年四月

全國水産對策協議會 結成準備委員會

▼水産對策을確立하야 國立計劃에 [illegible]하자

中仁齒科
電本②四五四七 (國際劇場後)

雜貨及絹裁縫糸
廉利로奉仕하는
各種雜貨貿易商 高麗洋行
서울市北米倉町一三六(金千代會館隣)
電話本局②三一九三

文世榮著 決定版
既刊版 博文書館刊 (10年前) 永昌書館刊 (7年前)
決定版內容 菊版洋裝2500頁(約600頁增) 追加語彙3萬餘—計14萬餘語 插畵2000·橫書新組版 統一綴字法使用
朝鮮語大辭典
豫約方法
豫約金 150圓也 期限6月20日
配本 部數制限으로因하여7月初旬부터豫約順으로配本함
서울市樂園町300 (파고다公園後門通)
朝鮮語大辭典刊行會
서울市鍾路3丁目89·電光3188
豫約申込所 總販賣所 靑丘書店

地下에숨은古文化
慶州古墳을美軍이發掘

【오ー크랜드五日發에피숌】 『오ー크랜드·카리포니아트리분』지는 미군병이조선문화의과거를소개한다는것을 다음과같이보도하였다

현재모미군대위는 신라(新羅)시대의 고대묘(古代墓)를발굴할게획을 세우고있는데만약이게획이 실행되면세상에서온폐되고있든 고대조선문화가널리세상에소개될것이다

발굴될고대묘는 一천十一년전까지융성하였든신라시대모왕(某王)의 고묘인데세게는고대조선의예술(藝術)과과학(科學)에대한 지식이빈약한만치이게획이 실행되면세계를화사상에크게 공헌될것은명백한사실이다

조선인은아세아에서『알파벳』을최초로창조하였고 구라파에서인쇄가발명되기전에 이미인쇄술이발달되었으며 세계최고의하나인천문대(天文臺)를설립하였다

또一五二五년경에는 라국에압서서선박의라침판(羅針盤)을사용하였다 세계에서최초의百十二권이나되는백과전서(百科全書)는 조선인의 손으로편찬(編纂)되였고 일본도기(陶器)제작은순전히조선인적공의지도에의하는바만라

【사진은경주에잇는고분】

燦然!우리의古代文化

特急"解放"號
試運轉成績다좋

신록이깨끗한영남의산과들 구비차는 강과골작이를 꺼고감돌며 특급조선해방호는四일서울 부산(釜山)사이 四百五十키로 남으로북으로힘차게달리어예상대로의조흔성적을올리엇다

『파시五호』로된조선해방호기관차를압세운이열차는 四일상오八시九분 『마그라린』운수국장존슨운수과장 공작책임자로김로수(金魯洙)강영직(姜永稷)각지방보선과장 의무반원등기술관게百여명과 서울안각신문기자단일행을실고 일로부산왕복의시운전을하엿든것이다

技術向上에努力
試乘을끝마친 姜工作課長談

시운전을 마친 운수부공작과장 강영직(姜永稷)씨와 부산지방운수국보선과장은 다음과같이번가려가며 조선의 철도사정을말하다

현재의기관차로도 시속 백키로이상속도를내일수잇지만 침목이 튼튼치 못하여 못내는것이니무엇보다도먼저 침목보수와 선로의보강을하여야하겟다

그리고 기관차의성능은 곳 그나라제철업발달여하여따른만큼 우리는 틈틈 특히학생들은 이방면공업기술중심으로서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歸還船에虎列刺猖獗
上陸못하는二千餘同胞

【釜山支局電話】 항도 부산(釜山)에는 지난二일 자나 깨나 해방된조국산천을 그리며 멀리 해남도(海南島)남지나(南支那)에 가잇든 三천一백五십명의 전재동포들을 실흔 수송선이 한히의 개선을 한채 一주일이가차옴도록 상륙을 못하고잇다

그이유는 즉 현재배안에 진성 『호열자』와 『파라치으스』등 전염병이 창궐하여 六名까지 二명의 사망자를 내어 수장을 하엿고 만흔환자들이 갑사둑 느러나 미주둔군당국의 방역부에서 격리 소독을 하는중이다

이리하야 부산은 호열자 침입의 위경에잇서 시민의불안또한 적지않다

萬國會議에서獨立絶叫
海牙密使李儁烈士追念準備

해아(海牙)만국평화회의(會)에서는 여러가지형사애 한국의밀사(密使)로 파견되여 조선독립을웨처는나머지 만국사신들의눈아페서배를갈라 의열를뿌린 고 이준(李儁)선생의기일인七월十四일을 기하여열사의뜻을다같이 가명하고저 이준(李儁)열사추념 준비회(追念準備)를준비중인데 몽히발기인은다음과같다

◇發起人(無順) 權東鎭、元世勳、明濟世、任永信、吳世昌、李圭彩、李康國、金起林、李承晩、趙素九、張建相、李宗聖、金九、金元鳳、金法麟、崔益翰、呂運亨、鄭寅普、薛義植、李仁、許憲、白南雲、康基德、鄭洪錫、李鍾台、李克魯、趙炳玉、兪億兼、金盛植、金麗植、李如星、李舟河、李始榮、李泰俊、趙素昂、張道斌、洪命熹、李敎化、李英、鄭栢、崔奎東、金性洙、張勉、高炳南、方應謨、安在鴻、洪南杓、鄭泰謙、薛始大、權泰彙、劉英俊

「씨감자」配給

전남엽 씨감자(馬鈴薯)四백八十톤이 지난 二十七일인천에 도착하여 벌서농가에 배급중인데 씨감자로부터 수확된감자는 식용으로소비말고 저장하여 명춘또 씨감자로 쓰도록하야달라고한다

平和社會建設을目標로
在京有志가革命佛敎同盟을立

계급없고 죄악없는 평화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모든 형식 미신 봉건통구폐習을 라파숙청하고 一신불교를건설하야 민족적 사회적 전위대가되고저 재경 유지들교도(在京有志)와 발기로 그동안 준비하여오든 혁명불교동맹(革命佛敎同盟)이 지난 四월二십五일 서울시 남산정(南山)잔일인사찰 동본원사(東本願寺)에서 창립되엿는데교단개혁(敎團改革) 조국광복(祖國光復) 사회혁명(社會革命)을 강령으로하고 전조선불교중견청장년을 총망라하여 조직되었다는데 그의당면주장(當面主張)과 중앙위원(中央委員)은 아래와같다

땅면주장 ▲승니(僧尼)와교도(敎徒)를구별하자▲사원(寺院)은일반에게개방하라▲사찰토지는 국가사업에제공하라▲불건전한교당을、숙청하라▲승려는생업(生業)에 근로(勤勞)하라▲석가를(釋迦佛)을본존(本尊)으로하라▲종내의의식(儀式)을폐파하고 간소엄숙한새의식을실시하라

중앙위원 박봉석(朴奉石)장상봉(張祥鳳)곽서순(郭西淳)이부열(李富烈)외십육명

淸凉飮料에赤信號
一般飮料品을一齊檢查 軍政廳서

첫여름에잡아드른 거리에는 각종청량음료품(淸凉飮料品)등 여러가지음료품이 만히나와돌고있음으로군정청상무부에서는 일제히성분을 검사하는동시에 각종식료품도 검사키로되엿다 오지음거리에는 제조소불명인 식초 썩소로만든 과물수같은것이나와돌고있는데 그중에는해롭량품도있다하여 전면적으로 검사하리라고한다

獨立戰取講演

미소공동위원회대책전국국민총연맹에서는 七일하오三시부터종로기독청년회관에서 독립전취대강연회를개최하기로되엿는바 연제와연사는다음과같다

▲民族精神은建國의礎石 金敎淵▲白衣民族의將來

尊敬하는朴동무에게
曺奉岩 (一)

이글은 仁川에잇는 共産主義者인曺奉岩氏가 朴憲永氏에게보낸 手簡인데 그內容인즉 曺氏가自己批判을하는同時에 『人民委員會』와 『人民共和國』 『民主主義民族戰線』等의編纂的으로 犯한過誤를明快히指摘하였으며 三相會議支持鬪爭의技術的拙劣과아울러 一月三日大會事件의『詐欺師的잘못』을 淸算할勇氣를慫慂하였다。 또한共産黨의無氣力、宗派的、封建的인點을들어서 批判을加하는等、讀者여러분의參考할點이만키로이에全文을紹介하려한다。

내가붓을들어서 동무에게便紙를쓰는것은 一九二六年上海에서、동무에게暗號편지를 쓴것外에이것이처음인것갓소 내가얼마나동무를 尊敬하고또過去ㅣ除年間 동무가얼마나英雄的事業을 繼續햇는가하는것에對한 革命家로써의純誠의 讚辭는아첨이라생각할가해서 한마디도쓰지않것고 오직동무의꾸준한健康과健鬪를빌뿐이오

내가八、一五그날부터오늘까지 仁川에드러백켜서있어서 입을封하고오직黨部의 指示下에서내가할수있는일을 最大의情熱을가지고정성껏해왔소 나는그러케한는것이 나自身을爲해서黨을爲해서 나아가서는朝鮮、革命을爲해서 가장올은길이고올은態度라고밋는까닭이오 그런데오늘못을드러서무슨問題를 論議하고意見을陳述하게된것은 決코 이態度가달러저서그런것이아니오 똑같은態度와똑같은立場에서 오직黨을사랑하고동무를애끼는마음으로 아니쓸수없어서쓰는것이며 同時에나自身의 조그만한 反省이나 唯一한方法을 밋기때문입니다

톱바쁘실동무니 去頭截尾하고要領만씁시다

一、民族統一戰線及大衆鬪爭問題와그運營에對해서

(一)人民委員會와人民共和國의 組織의時期와選擇이나組織方法이 拙劣햇다는것은定評인모양이니까 差異勿論하고 나는다만그運營에對해서말하겟소 中央이나地方을勿論하고 지금의人民委員會는黨內에서 重用되지못하고 共産主義者들의政治的俱樂部요 中央人民委員中活動하는者로써 非共産主義者가몃치며 누군가? 李萬圭한사람을 제대로둡고나가지못하는중앙 나도알며내가있는仁川人委는 몃군대地方에比해서제법세워젓스나 非黨員으로는 能動的인사람이없는形便이오 또그構成要素나政治活動(色彩)으로보아서 一般大衆은그것을共産主義集團으로 알고있고 行政權없은行政團體이니까 그自體가行政研究團體처럼되어가고잇는것이 實情이오 이러한바에는人委에들어가있는 共産主義者들은차라리共産黨의이름으로써 正々堂々히아지푸르나햇드면 黨의일을파黨의影響이群衆속에드러간 程度가컷슬것이요 그런즉 人民의行政機關으로의構成上의 錯誤도잇지마는運營에있어서는 더큰失敗를햇소 더욱最近에있어서人委를그대로政權授受機關이될것같은 幻想을가지게하는것은더욱過誤를 거듭하는것박게아모것도아님을로생각하오

그럼으로黨은 人委에對한이러한 흐리멍텅한 政策을斷然히버리고 黨群衆과未組織大衆으로 하여금滿新鮮한氣分으로써 鬪爭의길로 勇進하게 해야할줄아오

(二)그다음 民主主義民族戰線은 잘된줄아오만은 亦是統一戰線으로써는 너무우리黨員이 過大히發현햇기때문에 非黨群衆의 能動的活動을 스사로 制約 시키고 있다고 보오 黨이크고 들은 戰線은 내세운바에는 大衆을 그길로 나가도록만하면 足하지않켓소 『地方에서는 黨員이絶對多數로 차지하여야된다』等의指令은 過誤로생각되오

(三)三相會議支持鬪爭에있어서의 동무의 態度와方針은 敬服하고 絶對支持하오 그러나 그것을實踐하는데있어서技術的으로 拙劣햇든까닭에 組織群衆에게는 그것을理解시키기에 만흔時間을 空費햇고 未組織大衆을 敵의便에 떠지게해서 只今도그릇된 올흔路線으로 끌기에는 無限한努力과時間을 要하리라는 事實을 正直하게認識해야될줄아오 政治는科學이며同時에技術이오 레ー닌동무의『……』라는말은 千古의眞理요 敵은 邪道로써 오히려群衆을 휘여잡고 우리는 옳은것을세우고 도리허、群衆을때앗겻다는 事實은正直하게認證합시다 黨은決코 政治學校가 아닐줄아우 또서울市人委의 一月三日大會事件은 定評이있는모양이니까 동무가 나보다 잘알일인데 거기對해서 黨內에서나 黨外群衆에게 釋明하지않고 그모든 詐欺師的 잘못을그대로 뒤집어쓰고 泰然하고 있는것은무슨 까닭이오? 동무에게 그런것쯤 大膽히 自己批判 하게할 勇氣가없을理는 없는데! 그것한가지가 黨에게얼마나큰 惡影響을 끼첫나하는것과 또그것을公開的으로 批判치않은것때문에 얼마나 만흔 過誤를거듭할가하는 點을 생각하면 한으로 慨然함을 禁할수없오(계속)

嚴恒燮氏巡回講演

【全州支局發電】독립촉성청년전북지부에서는 림정선전부장 엄항섭씨를초빙하야 五월하오一시부터 전주평남학교 운동장에서 강연회를개최하엿는바 二만여명청중이모혀성황을이루엇는데 씨의전북순회강연일정은 다음과같다

七일군산 八일김제 九일정읍 十일남원에서 곳마치고 전남으로 순회하기로되엿다

◇反託學聯講演會◇

반탁전국학생총연맹에서는 七일 하오二시부터 다음과같은 연사와 연제로 강연회를개최하기로되였다

▲우리라學生들아 그리고이러나라 金鍾中(中央中學)▲神聖한學園을 지키자 尹翠重(德成女高)▲自主獨立의大路 李鍾桓(神學校)▲反託과建國學生의自覺 金振鏞(普專)

集會

平安靑年會結成式 재경평안남북도청년들은 그동안 수차회합협의한결과 八백여명의 단원으로 평안청년회를결성하여서북청년에게부과된 특수사명을완수코저 七일하오一시부터 구룡아입보사크종회의실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기로되였는데 평남북출신청년은 빠짐없이 참가하기를바란다한다

春季拳闘大會六試合

新韓拳闘會主催春季拳闘大試合은 오는十日下午二시부터 서울運動場特設링크에서開催하기로되엿다

▲鄭福祿對金昌佳▲金光宣對林公在▲梁秦潤對朴連興▲宋淳澤對金文燮

오늘의라듸오

夜 六·〇〇講演▲六·一五京畿道時間公知事項(各局)▲六·三〇桑港放送(大中)▲七·〇〇時報뉴ー스▲七·一五政黨講演▲七·三〇民主々義時間▲七·四五放送舞踊(MG)▲八·三〇悔心曲▲八·四五遞信局時間放送劇▲九·〇〇時報、뉴ー스、公知事項▲九·三〇洋樂鑑賞

美國유나이테드社 最新入荷映畵
貿易風
監督 너ー가빌 主演 후래드릭·마ー치 조ー ·베넷
유나이테드社 뉴ー스上映
9日부터 晝夜連續4回
國成社·서울劇場

朝鮮이나흔 天才的舞姬!
仙芳·三和
第三回 藝術舞踊公開發表會
춤추는 春香傳 外十餘曲
仙芳藝術舞踊研究所 三和藝術舞踊研究所
5月8,9日 二日晝夜興 國際劇場

光내는藥 (MADRIX)
鍮器裝飾品其他織物研磨用 都散賣
地方特約販賣店募集中
京城市南大門通五丁目七〇番地(京城驛前世專越便)
電話本局②七〇五五番
第一化學公司

大特賣價格
別府散藥、頭痛藥、아스피링、解熱、補腎丸、補血强壯劑、春心丸、滿壯元、山蔘胃腸藥、六心元、不老長生、普生散、요오드、富士藥、藤原、以上、運動藥 … 其他各種藥品과新藥도具備되여있읍니다
賣藥特賣
求住宅
特賣

美國廿世紀폭스社海洋巨篇
監督 헨·스로로포
바다의巨人
부억타·마구라구렌 후레스톤·후 오스터 마이라·후피노
5月9日까지 서울劇場
滿員謝禮

特賣 上一萬圓以上 買入 … 原價 …
進國丸 고로다 渡環 解熱劑 神經痛 보다무丸
三和製藥株式會社 黃金町五丁目二三三 電話本一九二五